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江原日報	02면	“수복지구 주민 재산권 회복 관련법 제정하라”	1
강원도민일보	22면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
강원도민일보	03면	시도의회의장협 한국전쟁 수복지역민 권리회복 앞장	2
연합뉴스		시도의장협의회, 수복지구 재산권 회복 특별조치법 제정 건...	3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중소기업대상 시상식	4
강원도민일보	06면	"강원특자도시대 지역경제 활력 주춧돌 기대"	4
江原日報	21면	“더 좋은 기술·신제품 개발 일자리 창출에 기여”	5
강원도민일보	02면	한중일 체육·언론인 '2024강원 성공 개최' 모색	6
江原日報	10면	'2028년 개교' 석화초·홍천중 이전 본격 추진	6
강원도민일보	16면	"강원서 즐기는 'K-컬처' 글로벌 팬덤 활용 맞춤형전략 세워..."	7
江原日報	10면	춘천시사립유치원연합회 소아어린이 후원의 밤	8
江原日報	09면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성료	8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원주 반도체 교육센터 실효성 의문"	9
강원신문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소상공인협회 창단식 열려	9
江原日報	03면	“영동 산불 대응 대형헬기 시급”	10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제25회 임영전통문화 예술인의 밤	11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기업혁신파크를 춘천으로	12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3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윤길로(영월) 도의원	13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심오섭 도의원	13
江原日報	01면	'동해·삼척' 국내 대표 수소산업 도시 우뚝	14
江原日報	02면	강원자치도 4,100억 경제 효과 기대	15
江原日報	04면	도교육청, 출장비 부당 수령 의혹 자체감사	15
江原日報	04면	도교육청 학생지원 위한 위탁교육 사업평가회 개최	16
강원도민일보	04면	전자철판 사업 도교육청 권장 '우수조달제품' 일부만 계약	16
강원도민일보	08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 기업 유인책 시급	17
江原日報	05면	한파 물러가자 미세먼지 공습	1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정부 의료원 적자 해답 내놓을 때	1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역대급 공룡선거구 강원민심 무시하나	19
江原日報	19면	[사설]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 국민 또 고통 겪어야 하나	20
江原日報	19면	[사설] 선거 때마다 ‘공룡 선거구’, 사라지는 ‘대의정치’	21

江原日報

2023 12 07 ()

02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지사) 제9차 임시회가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이 제안한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수복지구 주민 재산권 회복 관련법 제정하라”

권혁열 도의장 시도의회의장협서 촉구

속보=수복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본보 7월24일자 3면 보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기됐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이 제안한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2020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제정 시행될 당시, 법률 적용지역 및 대상에 수복지구가 근거 없이 제외돼 수복지구도 해당되는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은 광복과 6·25전쟁을 거치며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민들이 간편한 절차로 사실을 바로잡도록 지원하는 법률이다. 1978년 최초 제정 이래 한시법으로 4차례 법 제정을 거듭했지만

2020년 제4차 제정의 경우 15년 전 법률을 베끼는 바람에 수복지구가 제외되는 입법 과오가 발생했다. 이후 특별법이 2022년 폐지되면서 수복지구를 포함한 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권혁열 의장은 “해당 특별조치법 제정은 아무런 이유나 근거 없이 재산권 회복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한 수복지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과제”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수복지역민의 아픔을 충분히 헤아려 수복지역민의 재산권 회복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2 07 ()

22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가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권혁열 도의회 의장과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07 ()

03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한국전쟁 수복지역민 권리회복 앞장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한국전쟁 '수복지구' 재산권을 박탈한 이들의 권리회복에 동참하고 나섰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제9차 임시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가 제안한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수복지구란, 북

위 38도 이북지역 중 6·25 한국전쟁으로 한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이다. 이설화 ▶ 관련사진 22면



2023 12 06 ()

시도의장협의회, 수복지구 재산권 회복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는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수복지구란 북위 38도 이북 지역 중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말한다.

건의안에는 2020년 2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수복지구는 제외된 점을 들어 재산권 회복 기회를 박탈당한 수복지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은 국회와 해당 정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된다.

권 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수복지역민의 아픔을 충분히 헤아려 수복지역민의 재산권 회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conanys@yna.co.kr

강원도민일보

2023 12 07 ()

01



강원중소기업대상 시상식 제27회 강원중소기업대상 시상식이 6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김진태 도지사,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과 수상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태 도지사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영

▶관련기사 6·7면

강원도민일보

2023 12 07 ()

06

“강원특자도시대 지역경제 활력 주춧돌 기대”

제27회 강원중소기업대상 시상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한 '제27회 강원중소기업대상' 시상식이 6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지사가 대상 기업인 세원상사(대표 이민세)에 대상기와 상패, 현판을 전달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한국오지케이(대표 박수안)에 우수상 상패와 현판을, 이노백(대표 한태욱)에는 장려상 상패를 수여했다. 우준식 신한은행강원본부장은 정상혁 신한은행장

수상기업 깃발·상패·현판 전달
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우대 혜택

을 대신해 신원하이테크(대표 박상래)에 장려상 상패를 전달했다. 특별상 강원중소벤처기업청장상은 청아굿푸드(대표 유재주), 중소기업중앙회장상은 교성(대표 차국열),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상은 두지(대표 조현태)가 각각 수상했다. 올해 27회째를 맞은 강원중소기업대상은 강원 최대 기업 시상 행사로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개최돼 도내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도내 시·군과 각 경제·금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유망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실태조사, 3차 본심사로 엄정한 과정을 거쳐 4개 부문 7개 기업을 선정했다.

수상 기업은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우대(이자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이날 허영 국회의원,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등 참석 내빈들은 이날 축하를 통해 강원 기업의 우수성 및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강원중소기업대상 시상식을 통해 강원지역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도 더욱 크게

주목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도내 중소기업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업계 애로사항 해결 필요성을 제고하고 기업환경 개선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올해는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계가 장힘겨운 한 해이기도 했다”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강원 중소기업인들은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모든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간 만큼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강원특별자치도시대에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우진·홍선우

“더 좋은 기술·신제품 개발 일자리 창출에 기여”

2023년 강원여성경영자대회
회원 20명 기관·단체장 표창

강원특별자치도 내 여성 경영자들이 2024년 지역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합심하기로 했다.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도지회는 6일 세종호텔 사파이어홀에서 ‘2023년 강원여성경영자대회’를 개최했다. 도내 여성 경영자들의 지난 1년간 노고를 격려하고, 갑진년 새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한 이 자리에는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김명선 행정부지사,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를 비롯한 내빈과 여성 경영인들이 자리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전순란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도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행사는 경과보고, 유공자 포상 순으로 이어졌다. 엄현옥 LG생활건강 춘천강북대리



◇2023 강원여성경영자대회가 6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전순란 (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도지회장,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김명선 행정부지사,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를 비롯한 내빈과 여성 경영인들이 자리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점 대표, 최경자 주모협동조합 대표, 김태은 (주)티오커뮤니케이션 대표, 손줄리아 그뽕잡비비 대표, 최명순 보령기전(주) 대표 등이 도지사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회원 20명이 기관·단체장 표창을 수상했다. 여성 경영자들의 화합을 위한 축하 떡케이크 절단식도 마련됐다.

전순란 도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 경영자가 가진 특유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더 좋은 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해 기업을 키우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각급 기관·단체가 상생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도내 여성 경영인들이 많은 역할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

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수 전무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인 중 여성기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할 정도로, 경제분야에서도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여성기업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현아기자 haha@

2023 12 07 ()

강원도민일보

02

한중일 체육·언론인 '2024강원 성공 개최' 모색



강원도민과 함께 봄업

오늘 본지 주최 스포츠 미디어 포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봄업 및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2023한중일 스포츠미디어포럼'이 7일 오후 1시30분 강릉 씨마크호텔 바다홀에서 개최된다. 제3회를 맞는 올해 포럼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4강원대회 봄업 확산을 위해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개국 스포츠·미디어 관계자들이 참석, 2024강원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스포츠·미디어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중일 스포츠 미디어 포럼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도민일보가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이 후원한다. 2024강원대회 성공개최, 한중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 및 동북아 3개국 미디어 협력을 주제로 한 '2023한중일 스포츠미디어포럼'에는 진종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조직위원회 공동 위원장과 유승민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IOC위원), 모리오카 유사쿠 일본스포츠협회 전무이사가 2024강원대회 성공개최 방안 및 한중일 스포츠 교류 등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에는 심오섭 도의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지원특위 위원장과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 영화배우 박재민 2024강원대회 홍보대사, 박진우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한중일 스포츠 미디어 포럼에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봄업 캠페인: '나에게 청소년 올림픽이란!'이 진행, 2024 강원대회 봄업을 확산한다. 이와 함께 도는 6일 도청에서 김명선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강원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도시군번영회연합회 등 13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성공개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김 부지사는 "아시아 최초 열리는 2024강원대회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박지은

2023 12 07 ()

江原日報

10

'2028년 개교' 석화초·홍천중 이전 본격 추진

【홍천】홍천 석화초교·홍천중이 전사일이 2028년 3월1일 개교를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홍천군과 홍천교육지원청, 학교이전추진위원회 등은 6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학교 이전 설문조사 결과 보고 및 향후 이전 방향을 협의했다. 올 10월25일부터 11월11일까지 석화초교·홍천중 재학생·학부모·예비학부모·교직원과

설문 결과 찬성 83% 압도적... 남녀공학 전환도 82% 찬성 내년 4월 타당성 연구용역 비롯 이전 행정절차 진행 협의

지역 주민, 동문회 등 총 2,9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이전 관련 설문조사에서 찬성이 초등학교 85.7%, 중학교 80.9% 등 평균 83.3%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이전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홍천중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찬성 응답은 이전 찬성 응답률보다 높은 82.8%를 기록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은 홍천중과 홍천여중이 대상이다.

앞으로 홍천지역 학교 이전은 내년 4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비롯한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관(학교) 전략적 재배치 방안 용역 △교육환경평가 △중기재정계획 반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 △예산편성 △부지 매입 및 중앙투자심사 △건축공사 등을 거쳐 이전이 이뤄지게 된다. 현재 석화초교는 홍천읍 갈마리 539, 홍천중은 홍천읍 연봉리 333-1이 이전부

지로 예정돼 있다.

민철홍 홍천교육장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학교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욱(도의원) 석화초교·홍천중학교이전추진위원장은 "지역 내 충분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남녀공학 전환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위윤기자 hwy@

2023 12 07 ()

강원도민일보

16

“강원서 즐기는 ‘K-컬처’ 글로벌 팬덤 활용 맞춤형 전략 세워야”

강원특별자치시대 2023 해외관광포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강원 관광 산업 지도가 새롭게 짜이며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강원도로 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관광산업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며 대한민국 관광1번지 강원관광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원도민일보는 강원특별자치도·강원관광재단과 함께 강원특별자치 시대, 해외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며 한류 관광 브랜딩 전략을 논의하는 ‘2023 해외관광포럼’을 개최했다. 관광분야 전문가들은 강원도만의 고유 산업과 관광을 결합해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이를 K-관광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마련돼야한다고 제언했다.

토론문 주요내용을 싣는다.



지난 5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시대, 글로벌 강원! 한류 관광 브랜딩 전략 2023 해외관광포럼에서 토론자들이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서영

“강원관광 지역 고유산업 결합 인플루언서 마케팅 강화”

토론

◇좌장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토론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심원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유진호 한국관광공사 관광디지털본부장 △유승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웅=“관광 정책 수립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과학적인 제안을 드린다. 첫째,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방송매체 홍보에 주목해야 한다. 한류 관광의 핵심은 K-컬처이다. 그 중심에는 가수나 배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있다. BTS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촬영지에서 주인공의 감정을 체험하고, 먹방 유튜버가 소개한 맛집으로 식도락하는 게 관광의 기본이다. 관광객이 원하는 게 이리저리 아티스트와 인플루언서를 강원관광이 품어야 한다. 게임 리그 오브 브레전드 패이커 선수 등 E-스포츠를 강원도에서 개최하고 유튜버로 생계 거하면 많은 해외 관광객이 강원도를 접하고 직접 찾아올 것이다. 둘째, 새로운 개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균형에 맞춰 권역별로 관광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제는 지리적·전통적 권역을 넘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을 연계한 콘텐츠가 마련된다면 권역을 넘어서는 체류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밖에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고 강원권 공방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심원섭=“강원특별자치도는 국내 대표적인 휴양지로 자리매김했다. 숙박 여행 일수와 여름 휴양지 만족도 등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인 2021년 9만 9000명에서 올해 29만 명까지 회복했다. 다만 강원도는 다층적인 입지구조와 취약한 산업구조로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영동권 제2청사 개청과 함께 관광산업을 토대로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 강원관광 특성화 전략에 기반해 2025년까지 관광객 2억명 유치, 관광 소비 2조 2100억원 달성 목표를 세웠다. 첫째로는 스마트 웨이케이션과 웰니스 관광 등 강원도만의 독창적인 관광



2025년까지 관광객 2억명 유치

합합·E-스포츠 등 콘텐츠 다양화

스마트 웨이케이션·웰니스 관광 개발

리뷰·이동통신 데이터 마케팅 접목

나라별 브랜딩 전략·홍보방안 모색

광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외국인 관광객 무사증 관광봉을 특례로 추진한다. 강원관광 컨트롤 타워인 관광국이 영동권 2청사에 자리잡았다. 강원관광의 획기적인 발전을 견인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유진호=“2000년도 중반쯤이었다. 당시 대만 지사에서 근무했는데 난리가 났었다. 국내 드라마 모래시계가 방영할 때처럼 대만 사람들이 퇴근 시간만 되면 바로 집으로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인기 있는 대만 드라마의 시청률은 3~4%대였는데 한국의 가을동화 시청률 11%를 기록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이같은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은 강원도가 제일 먼저 시작됐다. 겨울연가의 남이섬 등 한류 관광지나 촬영지는 강원도 외에 없었다. 다만, 이같은 드라마 관광지에 의존하곤 단순히 관광객만 오기를 바라던 길에 야 몇 개월만 반짝한다. 한류 관광지에 생명력을 집어넣어야 한다. 합합과 게임 리그 오브 브레전드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인 여성이 다수를 차지한다. 뷰티 분야나 후기 리뷰 등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을 짜야 한다. 많은 지자체가 한국관광공사와 데이터 협업을 진행 중이다. 이동통신 데이터와 관광 내비게이션 등의 관광 데이터를 마케팅에 접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유승각=“관광 브랜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강원도 관광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비교우위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한류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다. 강원도가 강점을 지닌 분야와 단점을 지닌 분야가 있을 것이다. 강원도가 주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어떻게 마케팅을 실행할 지 고민해야 한다. 동남아 관광객에게 스키가 매력적일 것이다. 압력으로 이뤄진 산을 접하기 어려운 일본인들에게 설악산이 굉장히 특색있게 다가올 것이다. 이처럼 같은 산을 가지고 관광객 유형에 따라 브랜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관광 분야의 부가가치도 중요하다. 춘천은 전통적으로 바이오 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 가면 탈라스테라 피라는 게 있는데 단순히 웰니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여러 산업과 연계돼 있다. 즉 지역의 고유 산업과 관광이 결합되면 관광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최성현=“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다양한 관광 분야 특례가 적용되면 강원관광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각 시·군에서 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오셨다. 아이디어를 통해 관광 산업을 육성하면 강원도 관광이 날개를 달 것이다. 강원도는 미래의 땅이 아니라 현재의 땅이 되어 한 품이 K-푸드를 선도할 수 있다. 화천군의 산천이 축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한다면 많은 상품이 나올 수 있다. 강원관광재단은 한국을 선도하는 강원도 관광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 노력할 것이다.”

정리/김덕형·이정호

江原日報

2023 12 07 ()

10

춘천시사립유치원연합회
소아어린이 후원의 밤

【춘천】춘천시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팽미정)는 6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소아어린이 사랑나눔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어린이 환자를 위한 후원금을 춘천시의회사회에 기탁했다.

이날 연합회는 김희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김보건 시의원, 박이욱 춘천시의회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비 및 치료비가 부족한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유치원 교사들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와 소통 촉진을 위한 ‘유치원 교사 연수 및 연찬회’를 열고 교사들의 다양한 교육사례를 공유했다.

팽미정 춘천시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앞으로 소외된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곳곳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강동희기자 yulnyo@

江原日報

2023 12 07 ()

09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성료

강원상인연합회는 6일 정선 하이원리조트 마운틴프라자에서 ‘2023 강원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내 전통시장·상점가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이 자리에는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기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최명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영동사무소장, 임준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내빈 10여명과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한 유공회원, 공직자에 대한 표창 시상식이 진행됐다.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아끼지 않은 공무원 8명과 유공회원 32명, 기관 1곳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전종옥 춘천번개시장 상인 회장을 비롯한 상인 5명과 기관 소속 지원유공자 6명은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했다. 김현이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2 07 ()

03

도의회 “원주 반도체 교육센터 실효성 의문”

조성운, 특성화고 활성화 주문

강원도 원주에 건립하는 ‘반도체 교육센터’를 두고 대상자 등 ‘실효성’이 불명확하다며 ‘특성화고’ 활성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성운(삼척) 의원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 3차 회의에서 산업국의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사업을 두고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교육 과정이 이미 있고, 이 교육센터를 나온 학생들이 강원도 기업에만 취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교육센터의 실효성을 짚었다. 이어 조 의원은 “공업고를 반도체 특성화고 등 반도체 전문 고등학교로 변경을 하는 방향이 어떻



조성운

임미선



원미희

박호균

도 성공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는 상황인데,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중앙 투자를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원미희(비례) 의원은 황성 전기차

겠느냐”고 제안했다.

임미선(비례) 의원은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 연구원 인건비를 두고 “박사급 인력 인건비 부분 (상승) 이 답보상태”라며 “정부연구용역 수주

생산업체 디피코 기업회생,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 실패를 언급하며 “전략산업은 실패 확률이 매우 높아 투자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남진우 도 산업국장은 “2024년도 예산은 (전략산업 실효성을) 철저히 적용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박호균(강릉) 의원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인건비 지원 12억7000여만원을 언급하며 “연구 건수가 많지 않고, 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주의 경고를 받은 곳”이라며 예산 지원에 따른 관리를 당부했다.

예결특위는 이날까지 3일간 질의를 마치고, 7일 강원도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예산안조정소위엔 이무철 위원장·박호균 부위원장을 비롯해 문관현·박관희·염윤순·박대현·지광천·이지영·김희철·조성운 의원 등 10명이 들어간다. 이설화·이정호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2023 12 06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소상공인협회 창단식 열려

정찬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소상공인협회 창단식이 6일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최문순 화천군수,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한기호 국회의원, 노용호 국회의원, 박대현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노이업 화천군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정찬범 기자 gwnews@hanmail.net

2023 12 07 ()

江原日報

03

“영동 산불 대응 대형헬기 시급”

자치도의회 예결특위

“담수량 3,000ℓ 이상급 필수”

“지방 공고 반도체 특성화를”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강원 영동지역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형 헬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3차 회의를 연 가운데 문관현(태백) 의원은 “소방헬기가 구조의 목적도 있어야겠지만 영동지역 산불을 끌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담수량 3,000ℓ 이상급 헬기가 필요한데 현재 계획된 예산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도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 담수량은 1,500ℓ다.

문 의원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큰 헬기를 구입하는 게 도민의 안전과 자연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관희(춘천) 의원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48.3% 삭감됐는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느냐”며 “대원들을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 상실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또 이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조성운(삼척) 의원은 “지방 소도시 공업고등학교

의 경우 학생 수가 더 줄어들고 있다”며 “춘천, 원주, 강릉에만 집중하지 말고 도내 다른 공업고교들을 반도체 특성화고교로 바꿔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진우 산업국장은 “도내 고교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면 교육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는 만큼 검토하겠다”고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예산안소위원회를 구성해 계수조정에 들어간다. 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이무철(춘천) 예결특위 위원장, 박호균(강릉) 부위원장을 비롯해 문관현(태백)·박관희(춘천)·엄윤순(인제)·박대현(화천)·지광천(평창)·김희철(춘천)·조성운(삼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지영(비례)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2023 12 06 ()

江原日報

[포토뉴스] 제25회 임영전통문화 예술인의 밤



'제25회 임영전통문화 예술인의 밤'이 6일 강릉세인트컨벤션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김화목 강릉문화원장, 정호돈 염돈호 전 강릉문화원장, 심오섭 도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제25회 임영전통문화 예술인의 밤'이 6일 강릉세인트컨벤션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김화목 강릉문화원장, 정호돈 염돈호 전 강릉문화원장, 심오섭 도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제25회 임영전통문화 예술인의 밤'이 6일 강릉세인트컨벤션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김화목 강릉문화원장, 정호돈 염돈호 전 강릉문화원장, 심오섭 도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제25회 임영전통문화 예술인의 밤'이 6일 강릉세인트컨벤션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김화목 강릉문화원장, 정호돈 염돈호 전 강릉문화원장, 심오섭 도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江原日報

2023 12 07 ()

19

춘천시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시는 남산면 광관리 일대에 추진 중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강원자치도에서는 유일하게 유치를 신청한 상태다.

국도교통부는 9월5일부

터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를 시작, 국토연구원(세종)에서 지자체 공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 기업이 원하는 개발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개발 규제 완화와 다방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는 그동안 수도권권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규제 속 개발이 저해됐고 국가 시책 사업에서도 매년 소외되는 등 지역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춘천시 남산면 광관리는 2006년부터 기업 유치를 계획했던 곳으로 현재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인프라와의 높은 연계성, 수도권과 우수한 접근성, 넓은 부지 확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2007년 춘천시는 남산면 광관리 등에 IT·BT·CT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점 육성해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했으나, 한라건설·서희건설·한화 등 기업이 당시 경제 불

강원포럼

이무철 강원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춘천시는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통해 첨단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기업 유치, 인구 유입이라는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춘천시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춘천IC에 인접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건너편에 368만㎡ 규모로 9,364억 원을 투입해 첨단산업 신도시 조성을

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소득 증대, 궁극적으로는 강원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1976년 스웨덴 최대 기업인 에릭슨 연구소가 이전하면서 다수 글로벌 기업, 300여개 ICT 기업, 7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스웨덴 시스타(KISTA)가 스톡홀름시 연구도시, 과학도시로 발전했고, 일본 시즈오카현 스소노시

도요타 후지공장 부지에 도

요타가 자율주행차와 로봇공학, AI가 결합된 스마트 시티인 우븐시티를 건설하

고 있는 것처럼 기업혁신파크를 춘천시에 유치해 계획대로 조성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첨단 신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강원자치도와 춘천시는 첨단 신도시 육성정책 수립, 재정 지원 등으로 강원자치도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구현에 지원자가 돼야 할 것이다. 기업혁신파크는 강원자치도 경제발전과 산업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도·도의회, 춘천시·시의회, 그리고 도내 유관기관이 협력해 기업혁신파크의 춘천시 유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당부드린다.

기업혁신파크를 춘천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춘천시는 우리나라 IT 대기업으로 꼽히는 더존비즈온의 참여로 앵커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독보적인 기업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또 춘천시 사업부지 368만㎡는 기업혁신파크 최소 지정 조건 50만㎡의 7배에 달한다. 무엇보다도 남산면 광관리 일대는 수도권까지 4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는 접근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기업혁신파크 유치는 춘천의 정밀의료·바이오·IT 인프라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또 기술 혁신과 연구

2023 12 06 ()

江原日報**[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철(정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7일 오후 2시 강원디자인진흥원 디자인홀에서 열리는 2023 강원 디자인 포럼에 참석.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7일 오후 1시30분 고성문화의집에서 열리는 2023년 고성군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

유순옥(비례) 도의원은 7일 오후 2시 동해 현진관광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2023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발전포럼에 참석.

원제용(원주) 도의원은 7일 오후 6시 원주 빌라드 아모르에서 열리는 (사)강원여성경영인협회 원주지회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7일 오후 6시 동명횃집에서 열리는 동명동 사회단체 송년의 밤에 참석.

윤길로(영월) 도의원은 7일 오후 6시 영월군 문화예술회관 3층 공연장에서 열리는 제9회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12 07 ()

15



윤길로(영월) 도의원은 7일 오후 6시 영월군문

화예술회관 3층 공연장에서 열리는 제9회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07 ()

10



심오섭 도의원은 7일 오후 1시30분강릉 씨마크

호텔에서 열리는 한중일스포츠미디어포럼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 12 07 ()

01

‘동해·삼척’ 국내 대표 수소산업 도시 우뚝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타 통과

3,177억 투자 ... 액화수소 분야 역대 최대 규모 프로젝트
‘동해’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삼척’ 공급기지 조성 추진
도 광역지자체 최초 ‘수소 관련 3대 핵심사업’ 모두 달성

동해시와 삼척시가 국내 수소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한다.

3,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내 최대 액화수소산업 거점인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추진이 6일 최종 확정됐다. ▶관련기사 2·14면

강원특별자치도와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위원장:김완섭 제2차관)에서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동해와 삼척에 2028년까지 총 3,177억원(국비 439억, 지방비 423억, 민자 2,315억)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국내 수소산업 프로젝트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이며 액화수소 분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동해시는 수소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삼척시는 국내 최대·최고의 수소 공급기지로 조성된다.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에는 수소 클러스터의 본부 역할을 할 산업진흥센터와 안전성시험센터, 기술검증 기반시설인 실증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수소 저장·운송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다양한 수소형태별 기업제품의 성능평가, 기술·제품의 안정성 시험·인증을 지원한다.

또 수소 저장·운송용 탱크, 밸브, 배관 등 63개 기업이 입주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이룬다.

삼척 LNG 인수기지 일원에 하루 30톤의 수소를 액화할 수 있는 수소

액화플랜트가 구축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부피가 800분의 1에 불과하고 폭발 위험성이 없어 저장과 운송이 간편하다. 삼척 LNG 인수기지의 냉열(영하 162도)을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경제성이 뛰어나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에는 액화수소 세계 1위 기업인 독일 린데가 참여해 사업 신뢰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이번 예타 통과로 수소 분야 3대 핵심사업인 수소 클러스터, 수소 규제자유특구, 수소 시범도시를 모두 달성한 전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수소에너지 전환과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기업 유치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수소산업을 동해·삼척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동해시, 삼척시와 함께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한 것이 예타 통과와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최기영·원선영기자

江原日報

2023 12 07 ()

02

강원자치도 4,100억 경제 효과 기대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타 통과

지역내 4,500여개 일자리 창출·기업 총 80곳 유치
액화수소 기반 비즈니스 모델 구축 수소경제 실현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2028년 완공되면 지역 내 4,500여개 신규 일자리 창출, 총 4,100억원 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액화수소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관련 생태계가 동해, 삼척에 집중되면 파생되는 효과 역시 상당할 전망이다.

■기업 유치 및 산업 성장 효과=수소산업에서 저장과 운송산업은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도 현재 국내 관련 기업은 전국에 분산돼 생태계 조

성에 어려움이 있다. 동해, 삼척에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지원기관과 기업,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상생형 산업생태계가 국내 최초로 구축된다. 또 국내 유일의 수소 저장·운송을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도 조성된다. 국내 수소기업이 동해, 삼척에 입주할 수밖에 없는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에 63개 기업을 비롯해 동해, 삼척에 총 80개 수소기업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4,100억원대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수소경제 중심 부상=동해, 삼척은 단연 국내 액화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된다. 이미 이 일대는 2020년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민간 컨소시엄과 대형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하면 액화수소 생산과 저장·운송, 활용까지 가능한 국내 유일한 지역이 된다. 액화수소의 부피는 기체수소의 800분의 1에 불과하고 폭발 등의 사고 위험성도 없어 상품성이 높다. 기체수소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삼척 LNG 인수기지의 냉열을 활용하면 경제성을 충분히

히 찾을 수 있다. 경제성과 효율성 중심의 수소 공급망 완성으로 생활밀착형 수소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다양한 수소산업 모델=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계기로 다양한 강원형 수소산업 모델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도는 액화수소 기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강원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액체수소충전소, 액체수소 어선, 액체수소 드론 등의 산업 육성이 거론된다. 또 세라믹 산업과의 연계·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석탄발전소 등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친환경·청정 이미지로 탈바꿈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3 12 07 ()

04

도교육청, 출장비 부당 수령 의혹 자체감사

“큰 비리처럼 보도돼 유감”

신 교육감 기자간담회서 밝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원 출장비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 자체감사에 돌입한다.

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명되지 않은 출장여비 4,802만원(4,755건)에 대해 이번 주 감사 계획을 수립, 다음주 중 자체감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3년8개월간 도교육청 직원 103명이 1만824건(1억2,587만원)의 출장비 부당수령을 적발했다. 이 중 6,069건(7,785만원)은 소명됐고 나머지 4,755건(4,

802만원)에 대해 부당수령 의혹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자체감사를 거쳐 소명자료를 작성해 내년 1월 중 권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신경호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관내 출장 중 잠깐 복귀해 업무 처리 후 다시 나간 경우가 대다수인데 큰 비리처럼 보도돼 유감스럽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한 후 소명을 통해 감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자철판사업 논란으로 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게 된 데 대해 신 교육감은 “차라리 가급적 빨리 감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관계자에 대한 처리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강동휘기자 yulnyo@kwnews.co.kr

2023 12 07 ()

江原日報

04

도교육청 학생지원 위한 위탁교육 사업평가회 개최

학업중단 예방 운영성과 등
위탁기관 간 사업 경험 공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신경호)은 6일 평창 라마다호텔에서 '2023 학생지원을 위한 위탁교육 사업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평가회는 올해 특별교육, 전문심리상담 및 학업중단 예방 사업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현장 의견 청취, 효율적인 위탁사업 방안 마련, 위탁기관 간 현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원재 정선고 교사의 '교사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나요' 강연을 시작으로 특별교육 운영 사례 나눔, 학업중단속려제 운영 사례 나눔, 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 사례 나눔 등으로 진행됐다.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위탁기관 간 사업 경험을 공유하며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가해학생 선도, 학생 학업중단을 감소와 학교 적응력 향상을 목표로 위탁기관과 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동휘기자 yulnyo@

2023 12 07 ()

강원도민일보

04

전자칠판 사업 도교육청 권장 '우수조달제품' 일부만 계약

도내 학교 타업체 구매 대다수
AS 편리성·학생의견 토대 결정
신 교육감 "조속 감사 의혹 해소"

속보=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자칠판 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본지 12월6일자 2면)한 가운데 일선학교현장에서는 도교육청이 구매를 권장한 '우수조달제품'이 아닌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대다수 확인됐다.

6일 본지는 나라장터를 통해 최근 전자칠판 계약을 체결한 강원도내 학교 8곳을 확인했다. 8개 학교 가운데 도교육청이 구매를 권장한 우수조달제품 등록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곳은 2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6개 학교는 타 업체 제품을 구매했다. 구매가격은 300만원대에서 700만원 사이로 다양했다.

이날 기준 나라장터에 등록된 전자칠판(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우수제품 업체는 4곳이다. 3개 업체는 서울소재며 다른 1곳은 경기김포에 본사가 있다. 4개 업체가 등록한 제품은 총 45개

에 달한다. 우수조달제품 8대를 구매한 강릉 A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우수제품 구매를 권장해 해당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해 구매 제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업체 제품을 구매한 6개 학교는 제품 고장시의 AS 편리성, 실제 기기를 사용할 교사들과 학생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우수조달제품이 아닌 제품을 구매했다는 입장이다. 원주 B학교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우수조달제품 구매를 '필수'가 아닌 '권장'으로 안내해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내 한

중학교 관계자도 "우수조달제품보다는 고장시 AS가 수월하도록 학교와 거리가 멀지 않은 업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 도입을 발표하면서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 특혜의혹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교육청 정책협력관실은 품질담보를 위해 정부기관인 조달청에서 만든 우수조달물품제도 및 기술인증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고 담당부서(미래체육특수교육과)는 그렇게 되면 극소수 업체만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들어 난

색을 표시했다. 결국 우수조달물품 구매를 권장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도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발표로 교육청은 이틀째 술렁이고 있다.

도감사위원회가 교육청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급적(감사를)빨리해서 의혹 여부를 판단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감사결과 의혹이 있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인사조치 여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답했다. 정민영

강원도민일보

2023 12 07 ()

08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 기업 유인책 시급

데이터센터 용지 1필지 유찰
수공 “입찰자격 높아 대상 한정”
시장 수요 파악 후 내년 재공고

춘천시와한국수자원공사가동면 일원에 조성하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가 6일 착공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시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사 착공 서류가 접수됐다. 공사는 3개월 간 공사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4월 시작될 전망이다.

동면 지내리 일원에 조성 중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면적

은 81만㎡로 2027년까지 사업비 3400억원을 들여 소양강댐 심층 냉수를 활용해 친환경 데이터 집적단지와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춘천시와강원특별자치도,한국수자원공사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수열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동면 지내리 일원은 연평균 기온이 11.1도이고 관측 이래 지진 발생이력이 전무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데이터센터의 필수조건인 주·예비 전력 공급을 위해 단지 내 변전소 2곳도 설치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연료를 직접 연소하지 않아도 되는 수열에너지의 장점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일까지 데이터센터 용지 1필지 입찰을 진행했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기업 유치는 사업 성패를 좌우할 쟁점으로 지목되는 만큼 내실 있는 기업을 유입할 계획 보완이 시급해졌다.

춘천시와 수자원공사는 입찰 자격 제한을 높게 설정하면서 국내 대상 입주 가능 기업이 30개 정도 밖에 안됐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 담당자는 “춘천시와 앵커 기업이나 유력 데이터센터 기관을 유치하기로 협의

하면서 참가 자격에 제한을 걸었다”며 “향후 시장 수요를 파악해 2024년에 재공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춘천시가 건축 재정에 들어간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윤기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33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수열 클러스터 사업 내 수열에너지 공급 시스템 구축 사업 총 108억원 중 시에서 16억 3000만원을 내는데, 이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신중히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김현경 hyunkyung@kado.net

江原日報

2023 12 07 ()

05

한파 물러가자 미세먼지 공습

한파가 물러가자마자 강원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의 공습이 시작됐다. 특히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게 불었던 6일 영서 북부지역에서는 미세먼지보다도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미세먼지 관측 현황과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춘천·원주·횡성·영월·평창·정선·화천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36 $\mu\text{g}/\text{m}^3$ 을 초과해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영동지역에서는 강릉 육전동과 고

초미세먼지 ‘나쁨’ 도 전역 몸살
독감 유행속 호흡기질환 우려
오늘 대기질 다소 개선 예보

성 간성 일대의 초미세먼지가 각각 오후 한때 41 $\mu\text{g}/\text{m}^3$, 36 $\mu\text{g}/\text{m}^3$ 까지 높아졌다. 또 원주와 횡성을 비롯한 영서 남부지역, 철원에서는 초미세먼지보다 먼지 입자가 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며 도 전역이 몸살을 앓았다.

춘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직장인 이모(32)씨는 “아침부

터 스모그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린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호흡기 질환이 걱정돼 한동안 쓰지 않았던 마스크를 꺼내 썼다”고 말했다. 아이를 기르는 김모(30)씨도 “요즘 감기가 확산되는 상황에 미세먼지가 더해져 걱정이 크다”며 우려했다.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예보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이번에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오염원에 중국의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더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의 경제활동 회복 등으로 올겨울

은 지난해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 확대 및 가동 정지 발전소도 지난해 14기에서 올해 15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미세먼지는 7일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는 “7일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이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다”고 예보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12 07 ()

/ 19

정부 의료원 적자 해답 내놓을 때

-코로나19여파 경영난,공공의료 보루 지켜야

강원 도내 공공의료원 적자가 심각해 지자 보건의료노조가 단식 농성을 하며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릉·삼척·속초·영월·원주 의료원 노조가 나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적자와 의료진 이탈 등 지역 의료원의 위기가 종사자들의 농성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의료원의 경영난은 계속 제기됐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공공의료의 보루인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환자 진료로 일반 환자가 줄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 도내 5개 의료원 평균 병상 가동률은 83.6%였으나 지난 6월 기준 51%까지 감소했습니다. 속초의료원의 경우 28.6%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의료원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도내 5개 의료원의 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원주의료원 101억9200만원, 강릉의료원 116억8200만원, 속초의료원 167억4800만원, 삼척의료원 130억5700만원, 영월의료원 146억9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회복기 손실 보상금뿐이어서 경영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의료원 종사자들의 농성은 공공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의사표시입니다. 도내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공공병원 대표자 28명이 지난 4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코로나19환자 치료에 전념했는데, 정부가 의료원 경영난을 외면한다며 대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지역 필수의료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할 공공의료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도내 의료원 적자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종사자들에 따르면 당장 직원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진 않지만, 사실상 체불 직전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직원 이탈과 인력재수급 어려움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07 ()

/ 19

역대급 공룡선거구 강원민심 무시하나

-총선 강원9석 해야 해소...과대의석수 부산·서울 줄여야

내년 4·1022대 총선에 적용될 지역구 253석에 대한 선거구획정안을 둘러 싸고 편향성을 질타하는 야당은 물론 강원을 비롯한 지역 차원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강원에서는 6개 시군을 지역구로 묶는 역대급 공룡 선거구가 나오면서 문화생활권을 무시한 탁상행정식 선긋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천과 부산은 인구 30만명 차이에 불과한 300만명대인데도 인천은 13석에 불과하고 부산은 여전히 18석이어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12월 5일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의 구체 기준은 인구 편차 1대2 이내로 하되 13만 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에 맞지 않는 선거구를 조정했다는 발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큰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부산과 서울의 과대 대표성은 개선되지 않았고 강원은 생활권과 주민정서와 동떨어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무려 6곳을 통합한 지역구안을 제시하는 등 반발이 큼니다. 21대 총선에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4개 시군을 묶어 갑·을로 나눈 선거구보다 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접경권역을 묶는 안은 2020년에도 거론됐다가 현지 반발로 무산된 폐기

안입니다. 문화생활권역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국가정책에서 지역 특성이 반영 점검될 수 있는데, 우격다짐으로 한 지역구에 몰아넣는 방식은 공감대를 이루기도 어렵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그러자면 강원은 현행 8석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해소가 어려우므로 1석을 더 늘리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강구돼야 합니다.

오래 전부터 의석수가 과대한 곳으로 지적돼온 부산과 서울에서 줄여 강원으로 넘겨야 기형적인 선거구 출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의 일방적인 지배에 따른 횡포 폐해를 줄이기 위해 소수자 시민권을 보호하면서 속의를 통한 현명한 결정을 장려해 왔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100만명대로 내려앉은 광역도는 소수자 위치로 국가정책 수립과 예산 투입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기 쉽습니다. 수십년 중앙정부에서 서울지상주의를 키워온 결과 수도권을 비대화로 인한 피해를 강원 등 열악한 지역에서 당하는데, 정치력 구조마저 악화하는 것은 탈출로를 막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얕팍한 셈법'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적 민주성이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에 원칙을 둔 여야합의로 획정안을 고쳐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12 07 ()

/ 19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 국민 또 고통 겪어야 하나

중국 당국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하면서 ‘요소수 대란’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재고 물량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급이 지연되고 사재기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또 요소수 관련 기업 주가마저 상승세다. 춘천과 홍천 등 도내 주유소에서는 현재 1과레트(10ℓ 요소수 70여개 분량) 단위로 주문을 하지만 언제 들어온다는 기약이 없다고 한다. 또 일부 화물차주가 평소보다 많은 양을 구매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주유소 업계에서는 1인 1통으로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요소수 값도 급등하고 있다. 주유소들이 요소수를 매입할 때 적용되는 가격은 이전만 해도 8,000원 안팎이었지만 현재는 1만1,000원까지 올랐다. 이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올 9월부터 대형마트 등에서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중단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였다. 9월7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일부 비료 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올 6월부터 요소 선

물 가격이 50% 이상 치솟으면서 자국 내 우선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요소 수출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함께 전했다. 이런 외신이 보도되면서 대형마트에서는 차량 요소수의 경우 한 사람당 1개씩만 살 수 있도록 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요소수 판매가 일시 중단됐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옥죄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 세관(해관총서) 지시로 산업용 요소 물량이 반입되지 못하고 있고, 내년 1분기까지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 소식도 나왔다. ‘요소 쿼터제’까지 시행될 것이라 전망마저 제기되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2년 전 파동 당시 국내 요소수 가격은 10배 이상 뛰었다. 곳곳에서 화물차 운행이 멈추는 대혼란이 벌어졌다. 2년 전 대란을 겪고도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더 높아진 상황이다. 중국 시장이 출렁이면서 요소수 위기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경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석탄발전소 탄소 저감장치 등에 사용되는 요소수의 부족은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江原日報

2023 12 07 ()

/ 19

선거 때마다 ‘공룡 선거구’, 사라지는 ‘대의정치’

인구수를 절대 기준으로 적용하는 현 선거구 확정 방식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구는 총선 때마다 뒤를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지난 5일 춘천을 단독 분구하고, 6개 시·군을 붙여 하나의 선거구로 만드는 3년 전과 동일한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확정위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구 의석을 현행 8석으로 유지하면서 선거구를 재편했다. 우선 춘천은 갑·을 2개 지역구로 단독 분구했다. 춘천시의 6개 읍·면을 떼어 만든 춘천-철원-화천-양구를 선거구의 기형

적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여파로 또 다시 ‘공룡 선거구’가 등장했다. 확정위는 현행 속초-인제-고성-양

양 선거구 가운데 양양을 강릉에 붙이고, 속초와 접경지역을 하나로 묶어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를 만들었다. 무려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은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996년 15대부터 2020년 4·15 총선까지 24년 동안 선거구가 다섯 번 재조정됐다. 18개 시·군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지역 정서와 생활권을 무시당하며 여기저기 쪼개지고 합쳐지는 수모를 겪었다. 특히 20대와 이번 21대 선거에서는 선거 40여일을 앞두고 급하게 선거구가 확정돼 유권자가 철저히 외면당했다. 15대 당시 춘천, 원주, 강릉이 각각 갑·을로 구분돼 전체가 13석이었지만 2000년 16대 선거에서 9석으로 줄면서 큰

변화가 일었다. 일부 군 단위 자치단체는 선거 때마다 이곳저곳 붙여지며 ‘대의정치’ 의미가 사라졌다. 인제군은 15·16대에 속초-고성-양양과 붙어 있다가 17대에 철원-화천-양구와 하나로 묶이더니 21대에서는 다시 속초-인제-고성-양양으로 돌아왔다. 태백-정선은 17~20대까지 영월-평창과 묶여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동해-삼척과 붙었다. 이리저리 껴맞춘 선거구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

려해 정해져야 한다. 같은 선거구의 유권자는 행정구역이라는 지역공동체 안에서 경제적 이해를 함께하면서 생활하고 문화적·정서적 동질성 속에서 살아가는 게

확정위, 속초와 접경지역 5개 군 하나로 묶어

지세, 교통, 행정구역 등 지역 특수성 무시

인구수 절대 기준으로 적용하면 대표성 잃어

정상이다. 이를 무시한 채 사는 곳과 투표하는 곳을 따로 정한다면 당선자가 지역 대표성을 갖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선거구 개혁의 본래 취지는 대표성을 높이지는 데 있는 것이다. 선거구 확정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지점은 정치적 합의의 부재다. 그동안 선거구 협상 과정은 극심한 당파적 갈등으로 인한 선거구 변경으로 확립할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선거구 조정은 국민 대표를 결정하는 중대사이므로 어느 한 쪽이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혹여 어느 상대를 도려내야 할 적이 아닌 대표성 강화에 대한 사전 합의부터 다시 이끌어 내야 한다.